



나·무·에·얼·힌·동·화/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의 자식들

글·신현배
시인·아동문학가

아 프리카 마사이 족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처음에 부모 형제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늙어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은 결혼을 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여인한테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소 떼와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날마다 소 떼를 돌보고 밭을 일구었습니다. 딸친 식구가 없어 늘 혼자서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바닥에 턱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유, 힌들어. 왜 이리 사는 게 고달프지?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서 그런가?”

여인은 문득 주술사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주술사한테 한번 가 볼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잖아.”

여인은 일을 하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떨어진 있는 주술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주술사는 마친 집에 있었습니다.

여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하자, 주술사는 여인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어려운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술사님, 사는 것이 고달프고 재미없어서 왔습

니다.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요?”

“그대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왔지? 가족이 생긴다면 즐겁고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거야. 이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결혼은? 이 나이에 남편을 얻으려고요?”

여인은 주술사의 제의를 받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 남편을 얻어 봐야 아이도 낳지 못할걸.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것은 남편이 아니라 아이야. 주술사님한테 아이를 얻게 해 달라고 부탁해 보자.’

여인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술사님, 저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 보다는 아이를 얻게 해 주십시오.”

“알겠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아이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릇을 들고 무화과나무를 찾아가 그 열매를 따서 그릇에 담아라.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집 안에 놓아 두고 산책을 다녀오너라. 그러면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고맙습니다.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여인은 주술사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그릇을 챙겨 들고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무화과나무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릇을 들고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따서 그릇에 수북이 담았습니다.

여인은 집으로 돌아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놓아둔 채 오두막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녁때까지 마을 주위를 산책했습니다.

여인은 날이 어둑어둑해서야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마당에 들어섰다가 발길을 멈추고 앉았습니다. 집 안에서 약자지껄 떠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내 집에서 갓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

여인은 집 안을 둘러다보고는 하들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오두막에 들어차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여인이 온 것을 알고는 우르르 집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오세요? 저희들이 오두막을 청소했어요.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인은 아이들이 이끄는 대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깨끗이 치웠는지 먼지 한 점 없네. 완전히 새 집이 되었어.”

여인은 집 안을 둘러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 때 낡아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소 떼를 돌보았어요. 풀밭에 데려가 배 불러 먹이고, 강가에서 목욕까지 시켰어요.”

여자 아이들도 말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저녁을 준비해 놓았어요. 어머니, 시장하실 테니 저녁을 드세요.”

여인은 이제 집에서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여인은 어째서 아이들이 자기 집에 있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주술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아이들이 생겼구나. 이 아이들은 무화과나무의 자식들이야. 무화과나무 열매가 변해서 아이들이 되었어.’

아이들은 부지런히 집 안 일을 했고, 여인은 아이들 덕분에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은 뿔뿔했다가 성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을 만났다가 사소한 일로 다툼을 벌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집 안에서 시끌벅적 떠들며 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못하겠니? 무화과나무의 자식들은 어쩔 수 없단니까. 하여간 버릇이 없어.”

아이들은 여인에게 꾸지람을 듣고는 시무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두들 입을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여인은 이웃 마을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오후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애들이 모두 어디 갔지?”

여인은 아이들을 찾아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집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주술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졌어요. 혹시 주술사님이 몰래 데려가시지 않았나요?”

“아니야, 아이들은 도한 열매가 되어 무화과나무로 돌아갔어.”

“그런 저는 어찌죠? 아이들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주술사님, 제발 아이들이 집에 돌아오게 해 주세요.”

여인은 주술사에게 사정하다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술사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싶어 떠나간 아이들을 무슨 수로 다시 데려오겠나? 그 아이들은 잊어버리도록 해.”

“아니에요. 아이들을 꼭 집에 데려올래요. 지난해에 주술사님이 일러 주신 대로 하면 무화과나무의 자식들을 집에 데려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대 봐야 소용없을 텐데. 제발 그 아이들은 그 땅 잊으라니까.”

그러나 여인은 주술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들고 무화과나무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바른 이 나무지? 저번처럼 열매를 따야겠다.”

여인은 나무 위로 올라가 열매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열매들은 도끼눈을 뜨고 여인을 노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겁에 질려 열매를 딸 수도, 나무에서 내려올 수도 없었습니다.

“사, 사람 살려!”

여인은 마친내 비명을 지르고 앉았습니다.

그 때,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비명 소리를 듣고 무화과나무로 달려왔습니다.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나무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여인은 무화과나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